

쟁점법안 줄줄이... 여야,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강대강

오늘 의사일정 재협의...민주 "특검법 회기내 관철" 국회 "처리 불가" 김건희·한동훈 특검 화약고... '여소야대' 속 22대 국회도 험로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도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5월 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다시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쟁점 법안에 대한 양측 입장차가 워낙 커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우선 처리하고,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

법 재표결도 회기 내 관철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야당이 주도해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민주유공자예우법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정무위),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농해수위) 등에 대해서도 다음 달 말 처리를 버리고 있다. 아울러 제2 양곡법처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 방송3법 등의 재입법 추진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각종 법안을 처리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총선 민심으로 확인됐다"며

"21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5월 국회를 소집하고 본회의 날짜를 정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5월 국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한 쟁점 법안은 다르지 말고 민생 법안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채상병 특검법 등은 다음 국회로 넘기고,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 등 여야가 합의점을 찾은 비쟁점 법안 처리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견 없는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면 얼마든지 본회의를 할 수 있다"며 "쟁점 법안의 경우 이번 국회에선 시효가 종료된 것이나 다름없다. 새로 뽑힌 국민의 대표가 22대 국

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유공자예우법의 경우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처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 중이고, 제2 양곡법 역시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대의 뜻을 표명해 윤 대통령의 선택이 주목된다. 이처럼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여야 간 날 선 대치는 22대 국회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예고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등 범야권은 이번 총선을 통해 192석을 확보함으로써 21대에 이어 '여소야대' 구도를 지켜냈고, 야권 강경파도 대거 원내 입성을 앞두고 있다. 더구나 야권이 공조를 예고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특검법은 화약고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총선 승리 직후부터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 처리를 준비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새 국회 개원 즉시 총선 1호 공약인 '한동훈 특검' 추진에 착수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벌써 민주당과 발의 문제를 협의 중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거부권이 행사된 또 다른 법안인 방송3법, 노란봉투법, 간호법 등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1대에 이어 22대에서도 '소수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현실적으로 '거야' 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을 물리적으로 막을 도리가 없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수용하기 힘든 쟁점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 거부권 카드를 다시 꺼내 들 가능성이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광주지역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8명이 지난 26일 광주 광산구 월봉서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지역 발전을 목표로 하는 협의회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정준호 당선자 제공>

광주 당선자들 "지역 현안 공동 대응"

8명 광주 의원모임 발족...상임위 선별 배정 등 협력 체계 구축

광주지역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8명이 지역의 발전 계획 수립과 추진을 목표로 하는 협의회를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다. 기존 국회의원 간의 연대를 넘어 당선자 워크숍을 열고, 지역 현안을 상시 논의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광주지역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8명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6일 광주 광산구 월봉서원에서 워크숍을 열었다.

당선자들은 이날 워크숍에서 민형배(광산) 의원을 대표, 정준호(북구갑) 당선자를 간사로 한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을 발족했다. 정진욱(동남갑)·안도걸(동남을)·조인철(서구갑)·양부남(서구을)·전진숙(북구을)·박군택(광산갑) 당선자 등도 지역 현안 해결에 뜻을 모았다. 총선마다 지역 발전을 위한 당선자 모임이 구성돼 왔지만 대부분 1-2회 단발성 행사에 그쳐 보여 주기식 모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향후 어떤 방식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모으고 만남을 이어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또 당선자들은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를 선별해 서로 중복되지 않는 상임위를 배정받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이후 호남 정신문화의 산실인 월봉서원 고봉 기대승 선생을 배향하는 사당인 승덕사에서 참배하고, 박구용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의 정치철학 특강을 들었다. 당선자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확고한 소통과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친명' 박찬대, 민주 원내대표 단독 출마

다음달 3일 찬반 투표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이재명 당 대표의 측근이자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로 꼽히는 3선의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이 단독 입후보했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11시 마감된 원내대표 선거 후보에 박 의원만 등록했다. 민주당 당선인들은 다음 달 3일 22대 총선 당선인 총회에서 박 의원의 정권 발표를 듣고 찬반 투표를 통해 원내대표 확정 여부를 결정한다. 박 의원은 재직 당선인의 과반이 찬성해야 원내대표에 선출된다. 당 주류인 친명계의 단독 후보로 출마하는 만큼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로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열리는 22대 총선 당선자 워크숍에서 원내대표 후보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박 의원의 단독 출마에 따라 토론회는 생략

하기로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단독 출마는 이례적이다. 다만, 열린우리당 시절인 지난 2005년 당시 정세균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만장일치로 추대된 사례가 있다. 4·10 총선 압승으로 민주당에서는 통상 원내대표 후보군이라고 할 수 있는 3·4선 의원이 44명이 나왔고, 자전 타전으로 실제 출마가 거론되는 의원도 10여명에 달해 선거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박 의원이 지난 21일 가장 먼저 정식 출마 선언을 한 이후 유력 후보로 꼽혔던 김민석·서영교·김성환·박주민 의원이 출마를 포기하면서 친명계 내부에서 교통정리가 이뤄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박 의원은 당시 출마 선언에서 "강력한 '투톱 체제'로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는 개혁 국회, 민생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5·18 헌법 전문 수록 '원포인트 개헌' 필요"

정진욱 광주 동남갑 당선자 "22대 개원 즉시 논의" 촉구

22대 국회 개원 즉시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前文)에 수록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진욱 4·10 총선 광주 동남갑 당선자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헌법 개정을 위한 추진 특별위원회(기정)' 구성을 합의하고 곧바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들어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이뤄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당선자는 "1997년 국가기념일 지정,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 5·18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세계적으로 확립돼 있다"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며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해 국민을 희생시킨 지난 권력의 역사를 반성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때가 왔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다가오는 제44주년 5·18 기념사를 통해 의지와 입장을 제시한다면 여야가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말이 아닌 5·18 정신의 구체적인 실행 의지와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